

2002년 조선시장 “밝지 않다”

조선 수주단가 정체·하락 갈림길 … 수주량도 감소 전망

2002년 조선산업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해상운임의 하락으로 발주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며 선가상승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또 최근 몇 년간 대량 발주된 선박이 2002년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선박량 과잉이 우려되는 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노후선박에 대한 각국의 운항규제, 단일船體(Single Hull)선박의 운항제한 결정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선체구조 선박의 운항제한을 종전에는 선령(船齡)으로 최대 30년까지 제한했으나 2001년 4월 IMO에서 운항 금지 연도를 2007-2015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단일선체 구조선박의 조기 퇴출이 불가피하게 돼 2007년까지 신조선 수요가 약 4000만DWT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도 2002년 수주는 최근 몇 년간 대량 발주 영향에 따른 세계 발주량 감소에 따라 다소 감소해 600만-630만CG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35-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산업 전망(2002)

구 분	2001	2002	증감률
수주(만 CGT)	641	600-630	△6.4-△1.7
건조(만 CGT)	645	660-680	2.3-5.4
수출(억 달러)	97.0	98.5	1.5

건조는 2년 이상의 일감확보로 안정적인 조업기반이 조성된 가운데 2002년 인도가 예정된 선박들은 차질 없이 건조될 것으로 보여 사상 최대인 660만-680만CGT에 달할 전망이다.

수출 역시 2001년보다 다소 증가한 98억5000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애로 해소, 규제완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용어 해설

CGT(Compensated Gross Ton)는 ‘보정총톤수’로 선박의 부가가치, 투입공수(工數), 강재 소요량 등을 고려해 산출한 톤수이며 1994년 OECD 조선부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단위이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2/ 05 >